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분석 | 2026.10.22



KOSDAQ

GLOBAL

코스닥 글로벌 상장법인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KOSDAQ |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콜마비엔에이치 (200130)

해외 ODM 확대와 생산효율 개선으로 수익성 회복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이행상황

-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2025년 3월 28일 공시)
 - [수익성 개선] ROE 5% → 10%(~2027E), [자본효율성 회복] ROIC 5% → 10%(~2027E), [주주환원 확대] 배당성향 20% 이상
- 기업가치 제고 이행상황
 - [사업구조 효율화] 2026년 콜마스크 지분 매각 및 에이엔지 화장품 제조사업 양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ODM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 [신규 성장동력 확보] 2026년 콜마오랄스 설립 및 200억원 출자, 한국콜마 치약사업 양수를 통한 구강케어 ODM 사업 확대
 - [주주환원 정책 이행] 2025년 첫 중간배당(주당 75원) 실시, 2026년 자기주식 64만주 소각 및 주당 60원 중간배당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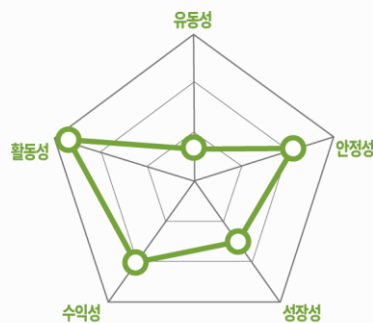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콜마스크 매각과 에이엔지 화장품 제조사업 양도를 통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고 건강기능식품 ODM 중심으로 사업구조 효율화. 콜마오랄스 설립을 통한 구강케어 사업 확대도 추진
-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및 해외 유통업체 중심의 고객사 다변화 진행. 기존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으로 1H26 별도 영업이익 +46.7% YoY, 영업이익률 8.4%(+2.2%p, YoY) 기록
- 2026F 연결 매출액 5,029억원(-12.5% YoY), 영업이익 364억원(+36.6% YoY) 전망. 예상 PER 5.9배, PBR 0.6배이며, 일회성 처분이익 제외 시 정상화 PER은 약 9.6배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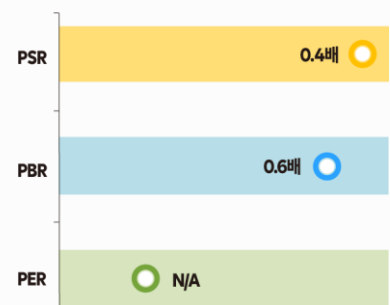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주: PSR, PER은 2025년 기준, PBR은 2026 기준, Enguide WICS 분류상 건강관리산업 내 순위 비교, 우측으로 갈수록 저평가

콜마비엔에이치 (200130)

Analyst 박선영 syark@kirs.or.kr

RA 정수현 sh.jeong@kirs.or.kr

KOSDAQ

건강관리장비와서비스

글로벌 ODM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수출 성장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둔화 속에서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기업과 해외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헤일리온의 센트룸 제품 공급 확대와 일본·유럽 등 신규 거래처 확보를 바탕으로 해외 ODM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598억원(+24.8% YoY)으로 회복세를 나타냄. 차별화된 제형 개발·양산 능력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내 공급 품목 및 물량 확대가 지속될 전망

생산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회복

2023년 세종3공장 준공 이후 확대된 고정비 부담이 생산물량 증가와 설비 활용도 개선으로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액은 2,454억원(+8.1% YoY), 영업이익은 206억원(+46.7% YoY)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4%로 전년동기 대비 2.2%p 상승. 일부 비용 환입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매출총이익률 개선이 확인되고 있으며, 글로벌 ODM 수주 확대와 고부가 제품 비중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됨

2026년 영업이익 반등, 정상화 수익성 회복이 주가 재평가의 관건

2026년 연결 매출액은 5,029억원(-12.5% YoY), 영업이익은 364억원(+36.6% YoY), 영업이익률은 7.2%(+2.6%p, YoY)로 전망. 비핵심 화장품 제조사업 정리로 연결 외형은 감소하나, 건강기능식품 ODM 성장과 비용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됨. 사업재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과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도 기업가치 제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2026F PER은 5.9배, PBR은 0.6배이나, 일회성 처분이익을 제외한 정상화 PER은 약 9.6배로 추정됨. 향후 본업의 영업수익성과 ROE 회복 여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변수로 판단됨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억원)	5,759	5,796	6,156	5,749	5,029
YoY(%)	-2.9	0.6	6.2	-6.6	-12.5
영업이익(억원)	611	303	246	266	364
OP 마진(%)	10.6	5.2	4.0	4.6	7.2
지배주주순이익(억원)	405	197	181	-227	385
EPS(원)	1,371	667	614	-771	1,321
YoY(%)	-42.0	-51.3	-8.0	적전	흑전
PER(배)	20.6	26.9	18.8	N/A	5.9
PSR(배)	1.5	0.9	0.6	0.7	0.5
EV/EBITDA(배)	11.7	13.8	10.3	10.5	4.5
PBR(배)	2.1	1.3	0.9	1.1	0.6
ROE(%)	10.3	4.9	4.5	-6.0	10.4
배당수익률(%)	1.1	1.7	2.7	0.6	1.0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Q/20)	7850원
52주 최고가	14,950원
52주 최저가	7,570원
KOSDAQ (1Q/20)	78197p
자본금	148억원
시가총액	2,259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29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8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7억원
외국인지분율	28.2%
주요주주	한국콜마홀딩스 외 10 인 45.75%
	한국원자력연구원 6.18%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4	-330	-460
상대주가	7.3	0.7	-39.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부채비율', 성장성 지표는 '매출액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ROE',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유동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밸류업 공식 법안 주주가치 존중 기업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는 기업.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며 투자자와 소통하는 기업

▶'글로벌 세그먼트'는 코스닥 시장 내 재무실적과 시장평가, 기업재무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한국거래소에서 선정된 기업



기업 개요

회사 개요

콜마비엔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핵심소재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전개하는
건강식 및 화장품 ODM/OBM
전문기업

콜마비엔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핵심 소재 연구개발과 ODM/OEM 사업을 영위하는 콜마그룹 계열사이
다. 동사의 전신인 (주)선바이오텍은 2004년 한국콜마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기업으로, 2006년
국내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면역기능 개선 개별인
정형 원료인 '헤모힘 당귀등혼합추출물'을 개발·사업화하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였다. 이후 2013년 한국푸드팜
(주)과 합병하며 사명을 콜마비엔에이치로 변경하였으며, 2015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동사는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개발과 건강기능식품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왔다. 2017년 중국 강
소콜마, 2018년 연태콜마를 설립하며 해외 생산 및 사업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9년 호주법인을 설립하였다. 2020년
음성3공장, 2021년 세종2공장에 이어 2023년 세종3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능력을 확대하였다. 또한 혈당 개선, 갱년
기 여성건강, 관절·연골건강 등으로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소재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
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2,641억원으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건강기능식품 62.7%, 화장품 33.1%, 치약, 손
소독제 등 2.2%, 임대기타 2.0%로 구성된다. 주요 고객사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틀미를 비롯해 글로벌 헬스케
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유한양행 등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및 제약·헬스케어 기업이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
의 내수와 수출 비중은 각각 60.5%, 39.5%이며, 중국·미국·대만·러시아·일본 등 총 26개국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동사는 국내외 5개 연결대상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국내 종속기업인 근오농림(지분율
90.0%)은 당귀·천궁·작약 등 천연물 원재료의 재배 및 공급을 담당하며, 에치엔지(100.0%)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업
을 영위하고 있다. 콜마생활건강(100.0%)은 건강기능식품 B2C 사업을 추진했으나 현재 사업 정리 절차를 진행 중이
다. 해외에는 건강기능식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는 중국 강소콜마(100.0%)와 호주법인(100.0%)을 보유하고 있
으며, 중국 연태콜마(49.0%)는 애틀미와 공동으로 설립한 지분법 적용대상 기업이다.

동사는 2026년 콜마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콜마스크 지분을 한국콜마에 매각하고, 에치엔지의 화장품 제조사
업부문을 계열회사 콜마유엑스에 양도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화장품 제조사업과 건강기능식품 B2C 사업을 축소·정리
하고, 건강기능식품 ODM/OBM 중심으로 경영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2026년 7월 구강케어 전문 종속기업 콜마
오랄스를 설립하고 9월 200억원을 출자하며 신규 사업영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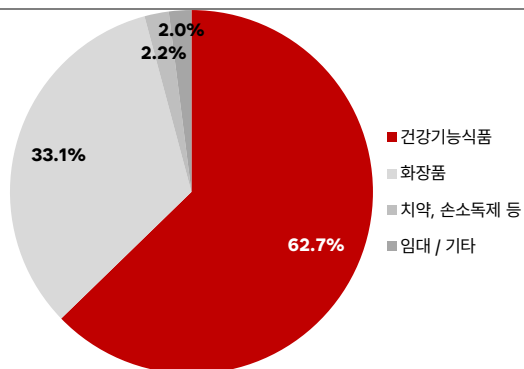
2026년 9월 말 기준 동사의 최대주주는 콜마홀딩스로 지분 45.6%를 보유하고 있으며, 윤여원(9.1%) 등을 포함한 최
대주주 및 특별관계인의 합산 지분율은 54.8%이다. 주요 주주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약 6.2%를 보유하고 있다. 동
사는 2026년 8월 자기주식 64만주를 소각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행주식총수는 2,877만 5,558주로 감소하였다.

회사 연혁

2004~2012	2013~2018	2019~
2004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콜마 공동출자 산바이오텍 설립 2006 음성공장(GMP) 완공 해모힘당귀등추출물 면역기능 개선 개발인정형 원료 승인 2007 개발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3건 2008 산바이오텍 대전공장 준공 2010 미국 수출 개시 2011 일본 수출 개시 2012 세종공장 준공	2013 대만 수출 개시 합병 및 상호 변경(콜마비엔에이치) 연질캡슐 라인 신설 GMP 적용업소 지정(역상, 연질캡슐) 2014 음성 제2공장(GMP) 준공 2015 코스닥 상장 2017 중국법인 강소콜마(Jiangsu Kolmar Meibao Keji Co., Ltd.) 설립 2018 중국법인 연태콜마(Yantai Kolmar Atomy Health Care Food Co., Ltd.) 설립 러시아 수출 개시	2019 포도블루베리추출물분말 기능력 개선 개발인정형 원료 승인 2020 미숙여주추출물분말 혈당 개선 개발인정형 원료 승인 중국 강소콜마 생산공장 준공 2021 미숙여주추출물분말 혈당 억제 개발인정형 원료 승인 세종2공장 준공 2022 콜마스크 주식회사 지분 인수 2023 산업통상자원부 월드클래스 기업 선정 세종3공장 준공 2024 '23년 SR보고서 발간, 업계최초 ESG 통합 A등급 획득, K-RE100 가입(세종) 안질연골건강 개발인정형 승인 코리아밸류업100대 기업 선정 2025 세종3공장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해모힘 신규 라인업 해모힘 샷 출시 세종3공장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세종3공장, 음성공장 글로벌 HACCP 인증 아쉬아긴디추출물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 개발인정형 원료 승인 2026 콜마스크(화장품 제조업) 매각 에치엔지 화장품 사업부문 양도 기원특 자기주식(약 98억 원) 소각 한국콜마 차약사업(콜마오탈식) 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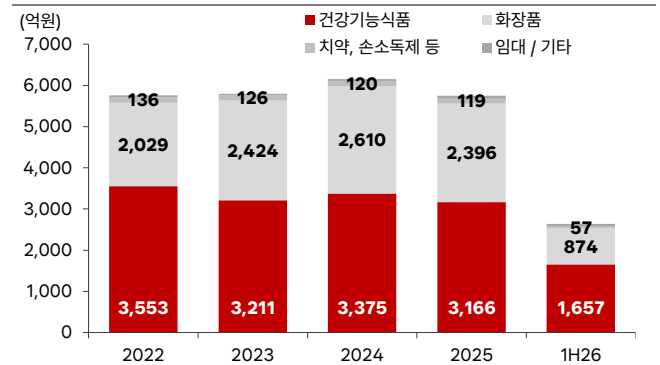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액 비중(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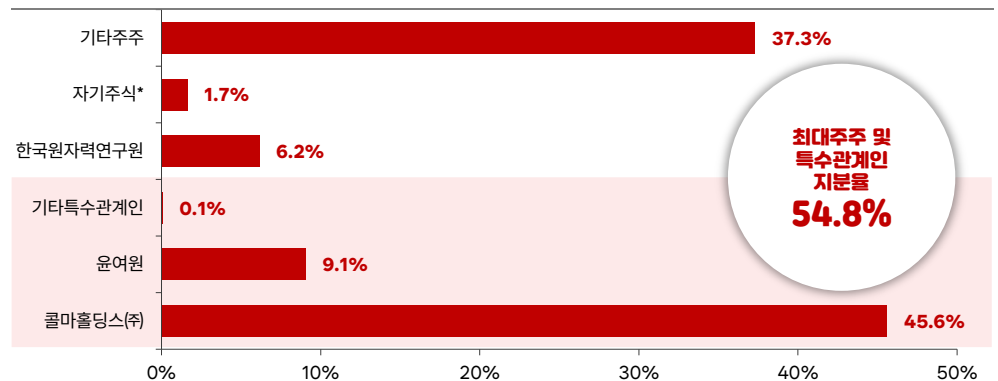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사업부문별 매출 추이(연결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주현황(2026년 9월 말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사업 영역

콜마비엔에이치는 천연물 기반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ODM/OEM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매출액은 2,641억원으로,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건강기능식품 62.7%, 화장품 33.1%, 의약외품 2.2%, 임대 및 기타 2.0%로 구성된다. 동사는 2026년 그룹 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화장품 제조사업 일부를 계열회사로 이관하고, 건강기능식품과 구강케어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고 있다.

(1) 건강기능식품 ODM/OBM 사업

기능성 소재 및 제형 개발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ODM/OBM 사업 영위

콜마비엔에이치의 핵심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ODM/OBM으로, 기능성 소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기획, 제형 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에 이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ODM(Original Development Manufacturing)은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방식이며, OBM(Original Branding Manufacturing)은 제품 개발과 제조에 브랜드 기획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동사는 자체 브랜드 판매보다 고객사별 독립 처방과 기술 보호를 기반으로 한 ODM/OBM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1,657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2.7%를 차지하였다.

동사의 핵심 경쟁력은 천연물 기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의 연구개발 역량이다. 주요 기능성 원료로는 면역기능 및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헤모힘 당귀등혼합추출물', 기억력 개선 소재인 '메모페놀(Memophenol)',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소재인 '미숙여주주정추출분말', 체지방 감소 소재인 '애플페논(Applephenone)', 갱년기 여성건강 소재인 '루바브뿌리추출물' 등이 있다. 2024년에는 관절·연골건강 기능성 소재인 '타마플렉스(TamaFlex®)'를, 2025년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기능성 소재인 '아쉬아간다추출물(KSM-66®)'을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으며 기능성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하였다.

동사는 기능성 소재 개발과 함께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형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액상·정제·캡슐·분말 등 기존 제형 외에도 쿨멜팅파우더, 팍핑파우더, 멀티바이알, 멀티PTP 등 차별화된 제형을 개발하여 고객사에 맞춤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주요 고객사로는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애터미,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 유한양행 등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및 제약·헬스케어 기업이 있다. 특히 헤일리온의 종합비타민 브랜드 '센트룸(Centrum)' 일부 제품군을 위탁생산하고 있으며, 링타·모닝케어 등 다양한 브랜드 제품의 생산에도 참여하고 있다.

동사는 기존 애터미 중심의 고객구조에서 나아가 국내외 대형 건강기능식품·제약·헬스케어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주요 브랜드사의 신규 제품 수주와 기존 ODM 제품의 생산물량 이관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고객사에 대한 매출 의존도를 낮추고, 기능성 소재와 제형 개발 역량을 활용한 ODM 사업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헤모힘은 국내 1호 면역기능개선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내 판매 1위, 수출 1위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주요 제품: 헤모힘

동사의 대표 제품인 '헤모힘'은 200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 개별인정형 원료로 승인받은 '헤모힘 당귀등혼합추출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타미의 글로벌 판매망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2023년에는 기존 면역기능 개선에 피로 개선 기능성을 추가로 인정받아 이중 기능성을 확보하였다. 이후 해외 국가별 식품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원료 및 성분 배합을 조정한 '헤모힘G'를 출시하였으며, 2025년에는 신규 제형인 '헤모힘샷'을 선보이는 등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국내 세종 및 음성 지역에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세종3공장을 준공하면서 생산능력을 확장하였다. 세종3공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로, 다양한 고품제 제품의 생산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종속기업 근오농림을 통해 당귀·천궁·작약 등 주요 천연물 원재료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중국 강소콜마를 통해 현지 건강기능식품 ODM/OEM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2) 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사업

화장품 제조사업 정리 이후
애타미향 제품 개발·공급사업
중심으로 운영

콜마비엔에이치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천연물 추출·정제 기술을 화장품 분야에 적용하여 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기술로는 천연물 추출물의 색도를 개선하는 고순도 정제기술, 생허브를 건조하지 않고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프레스 허브바이오 기술, 한방 발효기술 등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 및 기능성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인 애타미에 '스킨케어 6시스템', '애플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프레스 선로션' 등 스킨케어 및 선크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기존 화장품 사업은 콜마비엔에이치 본사의 제품 개발·판매 사업과 종속기업 에치엔지 및 콜마스크의 화장품 제조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26년 콜마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콜마스크 지분을 한국콜마에 매각하고, 에치엔지의 화장품 제조사업부문을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윌엑스에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 화장품 제조사업은 정리되었으나, 한국콜마 등 계열사의 생산시설을 활용한 애타미향 화장품 개발·공급사업은 유지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연결 화장품 매출액은 87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33.1%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콜마비엔에이치 본사의 화장품 매출액은 735억원을 기록하였다.

(3) 구강케어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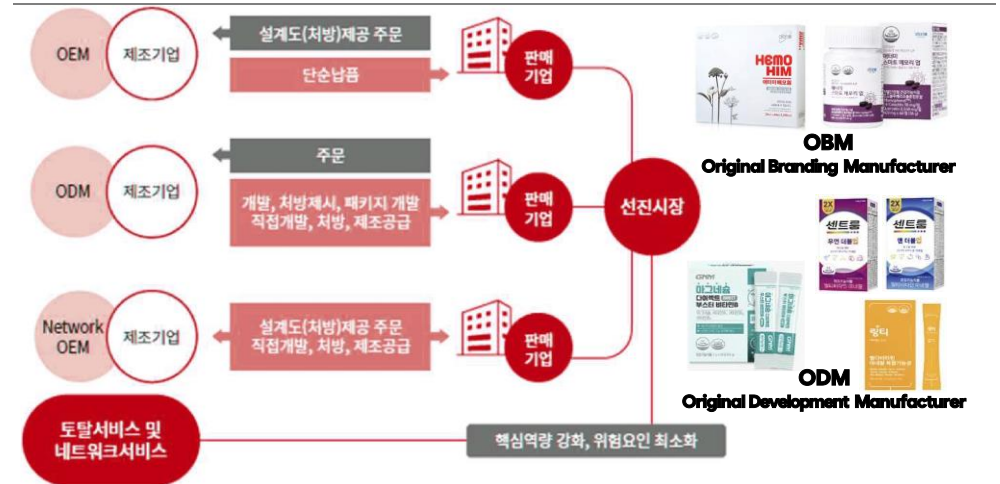
콜마오랄스 설립 및 치약사업
양수를 통한 구강케어 ODM 사업
확대 추진

콜마비엔에이치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사업 외에 치약·손소독제 등의 의약외품을 공급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의약외품 매출액은 57억원으로 전체 연결 매출의 2.2%를 차지하였다. 기존 의약외품 사업은 치약을 중심으로 애타미 등 주요 고객사에 제품을 공급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2026년에는 콜마그룹의 사업재편과 연계하여 구강케어 사업을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사는 2026년 7월 구강케어 전문 종속기업 '콜마오랄스'를 설립하였으며, 9월 200억원을 출자하여 한국콜마의 치약사업 양수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콜마오랄스는 치약을 비롯해 구강청결제, 구강스프레이 등 구강위생용품의 ODM/OEM 제조 및 판매를 사업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동사는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축적한 기능성 소재 개발과

제형 기술을 구강케어 분야에도 활용하여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계획이다.

비즈니스 모델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고객사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주요 제품 및 포맷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 시장 성장 둔화와 경쟁 심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정체와 제조업체 간 경쟁 심화로
제형 개발·대량생산·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한 ODM 기업의
경쟁력 부각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코로나19를 거치며 빠르게 성장하였으나, 2022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며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2025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5조 9,626억원(+0.2% YoY)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전국 6,7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 조사에서 최근 1년간 건강기능식품 구매 경험률은 83.6%로 최근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평균 구매액은 감소하였다.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높은 구매 경험률이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자 지출 확대가 제한되면서 시장 성장률은 정체되는 모습이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내수판매액도 정체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은 4조 910억원(+1.9% YoY)으로, 2021년 4조원을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국내판매액은 2021년 3조 8,015억원에서 2025년 3조 6,385억원으로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수출액은 같은 기간 2,306억원에서 4,524억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도 19.0% 성장하였다. 내수시장 성장세가 둔화된 가운데 수출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산업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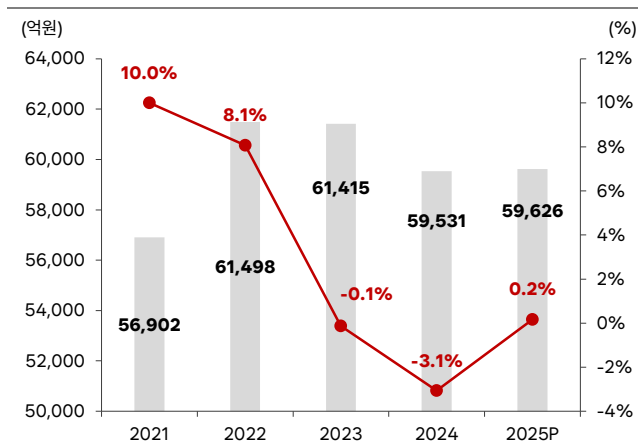
국내시장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체와 생산품목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는 2021년 539개에서 2025년 613개로 13.7%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생산품목 수는 3만 3,456개에서 4만 6,208개로 38.1% 늘어났다. 특히 2025년 제조업체 수가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동안 생산품목 수는 10.3% 증가하였다. 제한적인 내수 성장 속에서 신규 제품 출시와 제품군 다변화가 확대되면서 제조업체 간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객사 확보와 안정적인 생산물량 유지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제조 경쟁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의 성장과 기능성 제품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5년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주요 품목별 매출액은 비타민 및 무기질 7,875억원, 홍삼 7,845억원, 개별인정형 6,662억원, 프로바이오틱스 6,538억원, EPA 및 DHA 함유 유지 3,184억원 순으로,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매출액의 약 78.5%를 차지하였다. 특히 비타민 및 무기질은 전년 대비 12.6% 증가하며 홍삼을 제치고 매출액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전통적인 홍삼 중심의 시장에서 일상적인 영양 보충과 개인별 건강관리 목적에 맞춘 제품으로 소비 수요가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기능성 원료와 제형을 결합한 제품 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및 유통구조도 온라인과 개인 맞춤형 제품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25년 조사에서 인터넷몰은 전체 구매 규모의 71.0%를 차지하며 주요 판매채널로 자리잡았다. 온라인 중심의 유통 구조에서는 소비자 접근성과 제품 비교가 용이해지면서 브랜드 간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세분화된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는 신규 브랜드와 제품의 시장 진입도 확대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 목적과 섭취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제품의 기능성 외에도 섭취 편의성, 휴대성 및 제형 차별화가 주요 경쟁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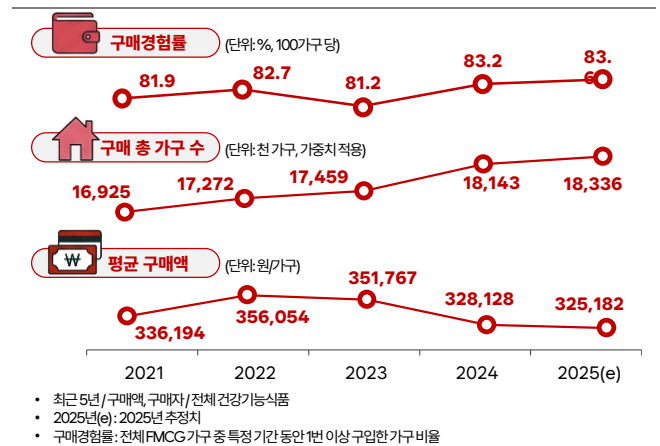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환경에서는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의 제품 개발 역량과 다품종 생산 대응력, 안정적인 품질관리 및 생산 능력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브랜드사의 제품 차별화와 신규 제품 출시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다양한 제형의 개발·양산 능력과 충분한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제조업체는 대형 고객사의 신규 수주 및 기존 거래처 내 공급 품목 확대에 유리할 전망이다. 특히 내수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해 해외사업을 확대하는 브랜드사가 증가할수록 국가별 품질·인증 요건과 대규모 주문에 대응할 수 있는 ODM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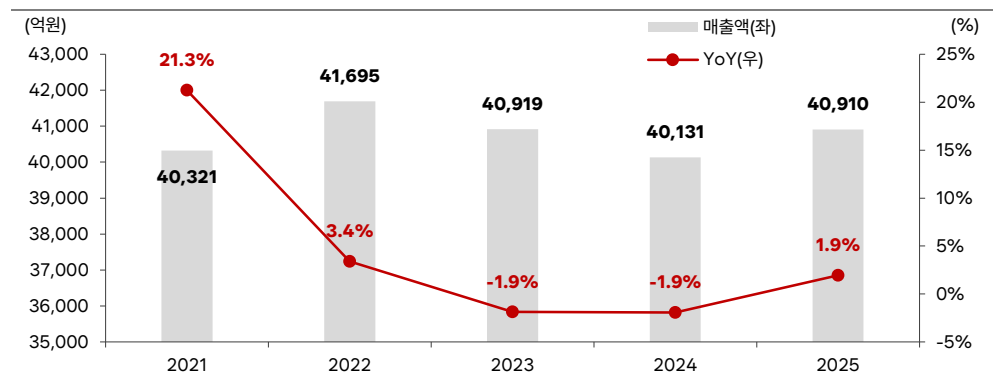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건강기능식품 구매 행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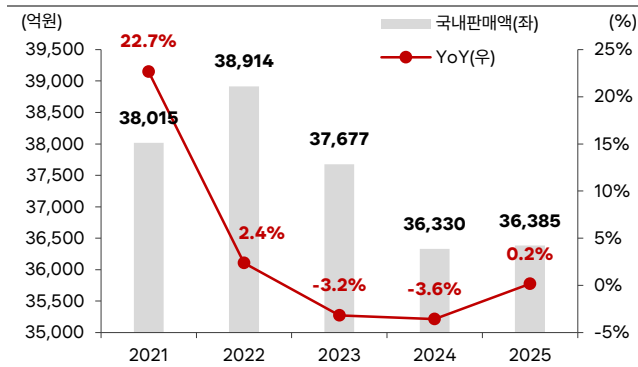
자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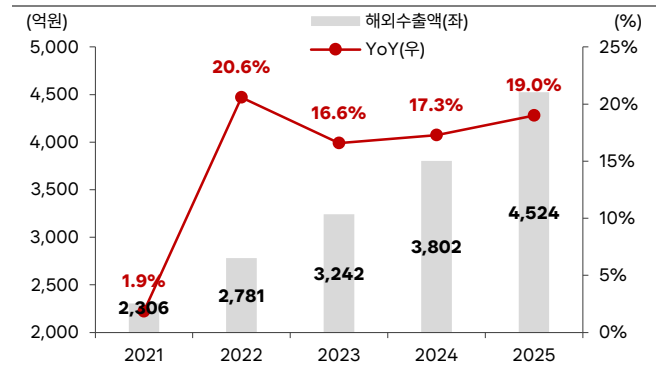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국내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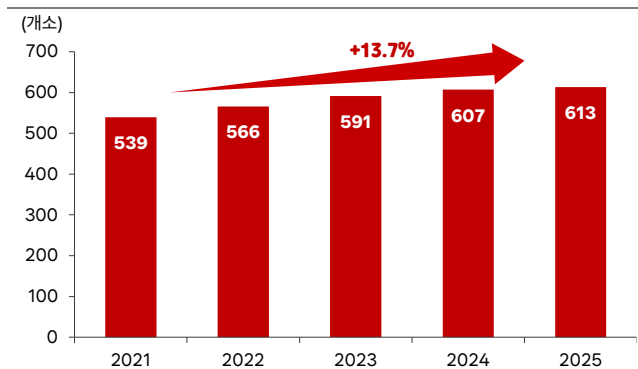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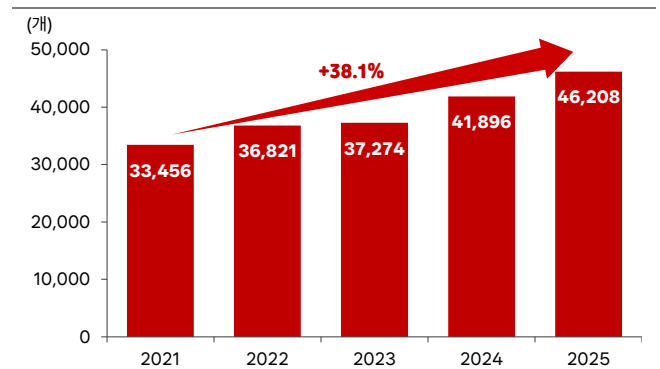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 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생산품목 수 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건강기능식품 상위 5개 품목별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홍삼	10,472	9,848	8,953	8,636	7,845
개별인정형	8,467	8,511	7,409	6,903	6,662
프로바이오틱스	7,677	6,977	6,755	6,397	6,538
비타민 및 무기질	3,354	4,606	5,591	6,992	7,875
EPA 및 DHA 함유 유지	2,367	2,819	2,667	2,291	3,184
누계(5품목)	32,337	32,761	31,375	31,319	32,105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등 생산실적),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성장과 국내 수출 확대에 따라
제형 개발·대량생산·품질관리
역량을 확보한 ODM 기업의
경쟁력 강화 전망**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산업: 해외 수요 확대와 K-건강식 수출 성장

글로벌 건강보조식품(Dietary Supplements) 시장은 고령화와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 확대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건강보조식품 시장규모는 2025년 2,095억달러에서 2026년 2,282억달러로 증가하고, 2033년에는 4,317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6~2033년 연평균 9.5%의 성장률에 해당한다. 건강관리 인식 확대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영양 보충 수요가 시장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체중관리·장건강·인지기능 등 특정 건강관리 목적에 특화된 제품으로 수요가 다변화되고 있다. 또한 정제·캡슐 중심의 기존 제품에서 액상·분말·구미 등으로 제형이 다양해지면서 제품 개발 및 제조기술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글로벌 최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2025년 북미 지역은 글로벌 건강보조식품 시장의 36.1%를 차지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6~2033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영양 보충이 일상화된 시장으로, 미국 건강기능식품산업협회(CRN)의 2026년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75%가 건강보조식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기반이 확대된 가운데 기능별 맞춤형 제품 수요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답자의 77%가 독립적인 품질 검증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답해, 글로벌 브랜드사의 제조 파트너 선정에서도 품질관리 및 제품 안전성이 중요한 경쟁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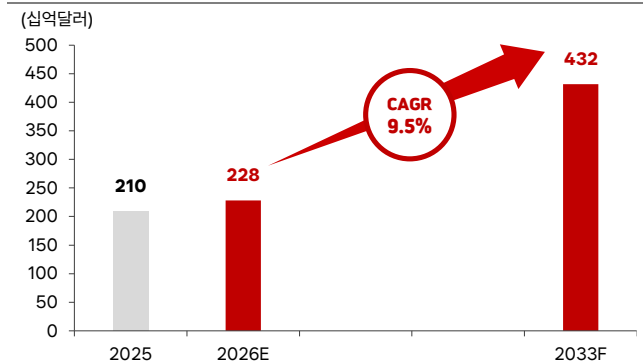
아시아 시장은 중국을 중심으로 건강관리 수요 확대와 유통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건강식품(保健食品)의 원료 및 기능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기업 역시 현지 규제에 적합한 제품 개발과 인허가 대응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건강보조식품 소비 저변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와 주요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제품 공급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가별 원료 사용기준과 기능성 표시, 제품 분류체계가 달라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는 현지 규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주요 경쟁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럽은 원료 안전성과 기능성 표시 등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시장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이 중요하다. 유럽연합(EU)은 식품의 영양·건강 관련 표시를 규제하고 있으며, 건강 관련 표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제조기업은 원료 구성과 함량, 기능성 표시 등 현지 규제 요건과 함께 유통업체별 품질 및 제품 규격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와 대형 유통업체의 자체브랜드(PB) 제품 공급에서는 제품 개발부터 대량생산, 품질관리 및 납기 대응에 이르는 종합적인 제조 역량이 수주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시장 성장과 함께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수출도 확대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수출액은 2021년 2,306억원에서 2025년 4,524억원으로 증가하며 4년간 연평균 18.4% 성장하였다. 특히 2023년 3,242억원(+16.6% YoY), 2024년 3,802억원(+17.3% YoY), 2025년 4,524억원(+19.0% YoY)으로 3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25년 국내판매액이 전년 대비 0.2%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수출액은 19.0% 증가하면서, 해외시장 확대가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산업의 외형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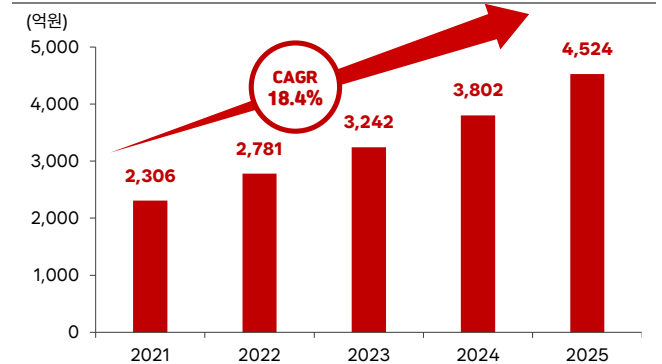
향후 국내 건강기능식품 ODM 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은 다양한 제형의 개발·양산 능력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이다. 글로벌 대형 고객사는 다수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균일한 품질과 안정적인 납기, 대량 주문에 대한 대응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 충분한 생산능력과 글로벌 품질 인증을 확보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규 고객사 확보 이후에도 제품군 확대와 반복 수주를 통해 매출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형의 생산 역량과 공급 안정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품질관리 체계와 대규모 생산시설을 확보한 국내 ODM 기업은 해외 고객사 확대를 통해 중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Dietary Supplements 시장규모 및 전망



자료: Grand View Research,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국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수출액 추이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e-나라지표,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투자포인트

1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ODM 수출 확대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와
신규 해외 유통채널 확보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ODM 수출 성장세
회복 전망

콜마비엔에이치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와 해외 ODM 공급물량 확대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수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당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둔화에 대응해 글로벌 제약·헬스케어 기업과 해외 대형 유통 업체를 중심으로 거래처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2025년 동사의 건강기능식품 수출액은 987억원(-9.0% YoY)으로 감소하였으나, 2026년 상반기에는 598억원(+24.8% YoY)을 기록하며 회복세로 전환하였다.

글로벌 ODM 고객사 확대와 함께 기존 최대 고객사인 애타미에 대한 매출 의존도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연결 매출액에서 최대 고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3%에서 2025년 57.3%로 15.0%p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최대 고객사를 제외한 매출액은 1,643억원에서 2,457억원으로 49.5% 증가하였다. 주요 고객사의 매출 감소를 신규 거래처 확보와 기존 ODM 고객사의 공급물량 확대가 일부 보완하고 있으며, 고객사 다변화가 향후 매출 안정성과 성장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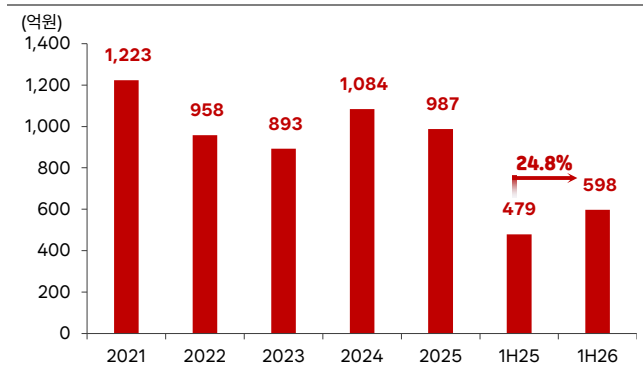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헤일리온(Haleon)과의 협업 확대이다. 당사는 2021년 헤일리온의 종합비타민 브랜드 '센트룸(Centrum)' 일부 제품군에 대한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생산물량과 공급 품목을 확대해 왔다. 2025년에는 자체 개발한 '쿨멜팅파우더' 제형을 적용한 '센트룸 이문부스트'를 중국 시장에 출시하며 협업 범위를 확대하였다. 기존 제품의 위탁생산에서 신규 제형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해외 공급으로 협업이 확장되고 있어, 향후 고객사 내 공급 품목과 생산물량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신규 거래처 확보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사는 일본 대형 제약사와 이중제형 용기를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을 공동개발해 현지 드럭스토어에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말레이시아 유통기업 코스웨이(Cosway)와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최근에는 유럽 지역 드럭스토어의 자체 브랜드(PB) 건강기능식품을 신규 수주하고 현지 매장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브랜드에 이어 해외 대형 유통업체로 고객군이 확대되고 있으며, 신규 PB 제품의 판매성과에 따라 추가 발주와 공급 품목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대형 건강기능식품 기업의 ODM 파트너 선정에서는 다양한 제형의 개발·생산 능력과 충분한 생산능력, 안정적인 품질관리 체계가 핵심 경쟁요인으로 작용한다. 글로벌 고객사는 국가별 제품 규격과 수요 변화에 대응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므로, 제형 기술과 대규모 생산 인프라를 확보한 제조사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다. 당사는 쿨멜팅파우더·팝핑파우더·이중제형 등 차별화된 제형 기술과 세종·음성 지역의 6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 FDA 실사 NAI 등급 획득과 NSF cGMP 및 글로벌 HACCP 인증 등을 통해 품질관리 역량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제형 개발 및 대량생산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신규 제품 수주와 기존 거래처 내 공급 품목 확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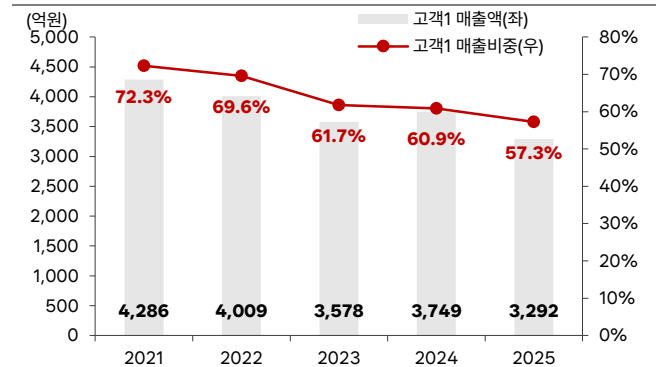
향후 건강기능식품 수출은 기존 글로벌 고객사의 공급 품목 확대와 신규 해외 거래처의 발주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의 제품 공동개발, 해외 대형 유통업체의 PB 제품 공급 확대는 반복 수주와 고객사별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확인된 수출 회복세와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 추이를 감안하면, 해외 ODM 사업이 향후 동사의 주요 외형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판단한다.

건강기능식품 수출액 추이(콜마BNH 개별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최대 고객사 매출비중 추이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생산설비 가동을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

생산시설 가동을 상승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으로 영업수익성 회복세 지속 전망

콜마비엔에이치는 기존 생산설비의 가동을 상승과 제품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수익성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동사는 2023년 세종3공장 준공 이후 신규 설비의 초기 가동을 저하와 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이 하락하였으나, 최근 국내외 주요 고객사의 공급물량 확대와 생산효율 개선으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액은 2,454억원(+8.1% YoY), 영업이익은 206억원(+46.7% YoY)을 기록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8.4%로 전년동기 대비 2.2%p 상승하였다.

동사는 대규모 건강기능식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 및 음성 지역의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특히 2023년 11월 준공한 세종3공장은 스마트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한 고품제 생산시설로,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하였다. 신규 공장 가동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 부담이 확대되면서 2024년 별도 영업이익률은 5.1%로 전년 대비 1.9%p 하락하였으나, 생산시설 안정화와 비용 효율화에 힘입어 2025년에는 6.2%로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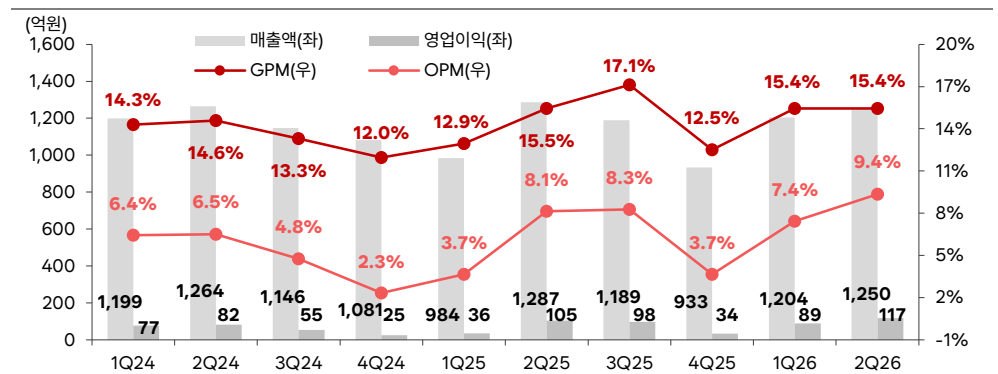
동사의 생산시설은 신규 고객사 확보와 생산물량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국내 세종 1~3공장과 음성 1~3공장 등 총 6개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기준, 주요 식품 생산공정의 가동률은 완제품 91.1%, 혼합·과립 85.5%, 고품제 정제 등 88.5%를 기록하였다.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은 설비 감가상각비와 생산인력 등 고정비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로, 기존 설비의 생산물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제조원가가 낮아지는 영업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글로벌 대형 고객사의 신규 수주와 기존 거래처의 공급물량 확대가 생산시설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다.

제품 믹스 개선과 비용 효율화도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별도 매출총이익은 379억원

(+16.2% YoY)으로 매출 증가율(+8.1% YoY)을 상회하였으며, 매출총이익률은 15.4%로 전년동기 대비 1.1%p 상승하였다.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와 생산공정 효율화에 따른 원가구조 개선과 함께, 판매관리비는 173억원(-7.0% YoY)으로 감소하며 판매관리비율도 8.2%에서 7.0%로 하락하였다. 다만 상반기 판매관리비에는 대손충당금 환입 약 16억원과 주식보상비용 환입 약 8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비경상적인 비용 감소 효과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총이익률 개선을 바탕으로 영업이익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업의 수익성 회복은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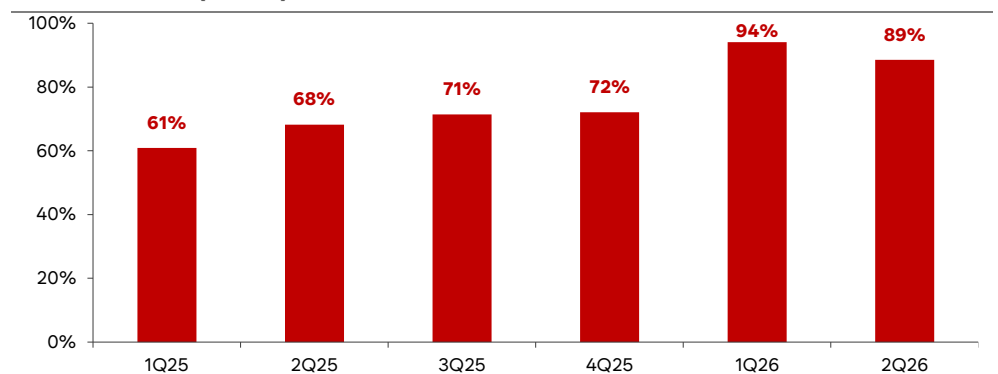
향후 수익성 개선은 글로벌 ODM 고객사 확대에 따른 생산물량 증가와 고부가 제품의 매출 비중 상승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선제적인 설비투자가 마무리된 가운데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고정비 부담 완화와 생산효율 개선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차별화된 제형을 적용한 신규 제품 수주와 대형 고객사향 공급물량 확대가 지속될 경우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분기별 매출액 및 수익성 추이(별도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분기별 생산가동률 추이(누적 기준)



주: 가동률은 주요 제품의 생산능력 대비 생산실적, 생산능력 산출근거(평균가동시간 1일 8시간, 월 20일, 1교대 가동 기준)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 사업구조 재편과 주주환원 정책 이행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비핵심 사업 정리와 주주환원 정책 이행을 통한 자본효율성 개선 및 기업가치 재평가 기대

콜마비엔에이치는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한 자본효율성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이행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당사는 2025년 3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과 투자자본이익률(ROIC)을 각각 10%로 개선하고 배당성향 20% 이상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2026년에는 콜마그룹 내 사업재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ODM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효율화하고, 신규 구강케어 사업 진출과 자기주식 소각 등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사는 2026년 1월 화장품 제조 종속기업인 콜마스크 지분을 한국콜마에 약 204억원에 매각하고, 종속기업 에치엔 지의 화장품 제조사업부문을 계열회사 콜마유크스에 약 224억원에 양도하였다. 총 428억원 규모의 비핵심 사업 정리를 통해 콜마그룹 내 화장품 제조사업은 한국콜마 중심으로 통합되었으며, 당사는 기존 애터미향 화장품 개발·공급 사업을 유지하면서 건강기능식품 ODM에 경영자원을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핵심 사업 중심의 자원 배분과 비용구조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

사업재편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도 진행되고 있다. 2026년 6월 말 연결 자산총계는 5,707억원으로 2025년 말 6,497억원 대비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부채총계는 2,942억원에서 1,880억원으로 축소되었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82.8%에서 49.1%로 33.7%p 하락하였다. 비핵심 자산 정리와 차입금 축소에 따른 재무건전성 개선은 향후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의 영업수익성 회복과 함께 투자자본 효율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규 성장동력으로는 구강케어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당사는 2026년 7월 구강케어 전문 종속기업 콜마오랄스를 설립하고, 9월 200억원을 출자하여 한국콜마의 치약사업 양수 및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기존 치약 제조사업을 기반으로 구강청결제·구강스프레이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신규 브랜드 고객사를 확보해 구강케어 ODM/OEM 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에서 축적한 제품 개발과 품질관리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며, 향후 고객사 다변화와 생산물량 확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이외의 추가 매출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주환원 정책도 자기주식 소각을 중심으로 이행되고 있다. 당사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1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4년 1월 자기주식 12만 8,000주를 소각하였다. 이후 2026년 8월에는 자기주식 64만주를 추가 소각하였으며, 이는 소각 전 발행주식총수의 약 2.2%에 해당한다. 또한 2026년에는 주당 60원, 총 약 17억원의 중간배당을 결정하였다. 중간배당금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발행주식 수 감소는 향후 이익 회복 시 주당순이익(EPS)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실질적인 성과는 정상화 수익성 회복과 자본효율성 개선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당사의 2026년 예상 ROE와 ROIC는 각각 10.4%, 11.5%로 2027년 목표치인 1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약 191억원의 일회성 처분이익을 제외한 정상화 ROE는 약 6.4%로 추정된다. 또한 ROIC 개선에는 비핵심 사업 정리에 따른 투자자본 축소 효과가 반영되어 있어, 향후 건강기능식품 ODM의 영업이익 증가와 신규 구강케어 사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여가 뒷받침되어야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한다. 사업재편을 통한 재무구

조 개선과 주주환원 정책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본업의 수익성 회복 여부가 중장기 기업가치 재평가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5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K-헬스케어/K-건기식 선도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밸류업 목표 및 이행 현황

구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진행 사항
수익성 개선	2027년 ROE 10%	2025년 순손실, 2026년 상반기 흑자 전환
자본효율성 개선	2027년 ROIC 10%	비핵심 사업 정리, 자산 및 부채 축소
자기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및 단계적 소각	2024년 12.8만주, 2026년 64만주 소각
현금배당	배당성향 20% 이상 지향	2025년 주당 75원, 2026년 중간배당 주당 60원
사업구조 개선	핵심 사업 경쟁력 및 수익성 강화	콜마스크 매각, 에치엔지 화장품 사업 양도, 콜마오랄스 설립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2025년 실적 추이

주요 고객사 매출 감소로 외형
축소, 원가율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영업이익 증가,
대규모 자산손상차손으로
순이익 적자전환

콜마비엔에이치의 2025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5,749억원(-6.6% YoY), 영업이익 266억원(+8.2% YoY), 영업이익률 4.6%(+0.6%p YoY), 지배주주순손실 227억원(적자전환)을 기록하였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둔화와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로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원가율 개선과 판매관리비 축소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증가하였다. 반면 대규모 자산손상차손이 영업외비용에 반영되면서 지배주주순이익은 적자 전환하였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 3,166억원(-6.2% YoY), 화장품 2,396억원(-8.2% YoY), 치약·손소독제 등 119억원(-0.8% YoY), 임대 및 기타 68억원(+36.0% YoY)을 기록하였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모두 주요 고객사의 발주 감소가 실적 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실제 최대 고객사향 매출액은 2024년 3,749억원에서 2025년 3,292억원으로 약 457억원 감소하며 전체 매출 감소분인 407억원을 상회하였다. 반면 최대 고객사를 제외한 매출액은 2,407억원에서 2,457억원으로 증가하며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매출 기반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매출원가율이 2024년 86.2%에서 2025년 85.5%로 하락하며 매출총이익률이 13.8%에서 14.4%로 개선되었다. 매출 감소로 매출총이익은 851억원에서 830억원으로 약 21억원 감소하였으나, 판매관리비가 604억원에서 564억원으로 약 40억원 축소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매출총이익률 개선과 매출 규모에 대응한 비용 축소가 외형 감소에 따른 이익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업외손익에서는 대규모 자산손상차손이 반영되면서 순손실이 발생하였다. 2025년 기타비용은 505억원으로 전년 16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 중 유형자산 손상차손 약 296억원과 영업권 손상차손 약 148억원 등 자산손상 관련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에 따라 세전손익은 2024년 234억원에서 2025년 -240억원으로 적자 전환하였으며, 지배주주순이익 역시 181억원에서 -227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다만 자산손상차손은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비용으로, 2025년 순손실에는 일회성 요인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2026년 실적 추이 및 전망

2026년 연결 매출액은 사업재편
영향으로 감소하나, 건강기능식품
ODM 성장과 비용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 36.6% 증가 전망

콜마비엔에이치의 2026년 상반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2,641억원(-12.2% YoY), 영업이익 205억원(+43.5% YoY), 영업이익률 7.8%(+3.0%p YoY), 지배주주순이익 292억원(+259.5% YoY)을 기록하였다. 콜마스크 지분 매각과 에치엔지 화장품 제조사업 양도에 따른 연결범위 변동으로 매출액은 감소하였으나, 건강기능식품 ODM 사업의 성장과 비용구조 개선으로 영업이익은 증가하였다.

사업부문별 상반기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 1,658억원(+2.6% YoY), 화장품 874억원(-32.7% YoY), 치약·손소독제 등 57억원(-10.9% YoY), 임대 및 기타 53억원(+76.7% YoY)을 기록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외 주요 고객사향 공급물량 확대에 힘입어 성장하였으며, 화장품은 제조사업 양도와 종속기업 제외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였다. 연결 매출총이익은 427억원으로 전년동기 426억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판매관리비가 283억원에서

222억원으로 약 61억원 감소하면서 영업이익 증가를 견인하였다.

영업외손익에서는 사업재편에 따른 일회성 처분이익이 반영되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6년 상반기 연결 세전이익은 390억원으로, 콜마스크 지분 매각에 따른 중속기업투자주식처분이익 약 165억원과 에치엔지 화장품 사업 양도이익 약 26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두 항목의 합산 이익은 약 191억원으로 상반기 세전이익의 49.1%를 차지하였다. 반면 별도 순이익은 강소콜마 증자 관련 일회성 비용 약 66억원 등이 반영되면서 98억원(-9.8% YoY)을 기록하였다.

2026년 연결 실적은 매출액 5,029억원(-12.5% YoY), 영업이익 364억원(+36.6% YoY), 영업이익률 7.2%(+2.6%p YoY), 지배주주순이익 385억원(흑자전환)으로 전망한다. 사업부문별 매출액은 건강기능식품 3,264억원(+3.1% YoY), 화장품 1,558억원(-35.0% YoY), 치약·손소독제 등 107억원(-10.1% YoY), 임대 및 기타 101억원(+48.5% YoY)을 예상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글로벌 고객사 확대와 국내 주요 거래처의 공급물량 증가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화장품은 그룹 사업재편에 따른 연결 매출 감소 영향이 연간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업이익은 매출 감소에도 원가율 개선과 판매관리비 축소에 힘입어 전년 대비 36.6%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2026년 매출원가율은 83.9%로 전년 대비 1.6%p 하락하고, 매출총이익률은 16.2%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판매관리비는 2025년 564억원에서 2026년 44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비핵심 사업 정리에 따른 비용구조 효율화와 건강기능식품 생산시설의 가동률 상승,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영업수익성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상반기 일부 비용 환입의 비경상성과 사업재편 이후 비용구조 안정화 과정 등을 고려해 하반기 수익성을 보수적으로 추정하였으나, 하반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약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해외 ODM 신규 고객사의 공급물량 확대와 기존 생산시설의 가동률 상승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순이익에는 사업재편 관련 일회성 처분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영업수익성 회복과 구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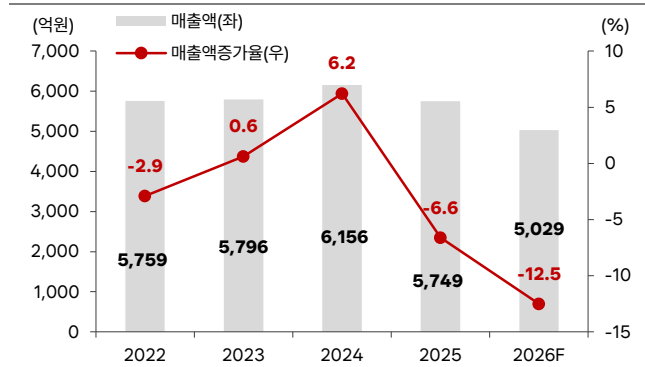
분기별 실적 추이

(단위: 억원, %)

	1Q25	2Q25	3Q25	4Q25	1Q26	2Q26
매출액	1,367	1,641	1,518	1,222	1,369	1,272
(YoY)	-14.7	-1.1	3.0	-14.0	0.1	-22.5
건강기능식품	714	902	880	670	826	832
화장품	608	690	590	507	496	378
치약, 손소독제 등	29	35	29	26	30	27
임대 / 기타	16	14	19	19	18	35
영업이익	36	107	97	27	103	102
(YoY)	-62.5	37.3	138.8	-17.9	188.5	-5.1
영업이익률 (%)	2.6	6.5	6.4	2.2	7.5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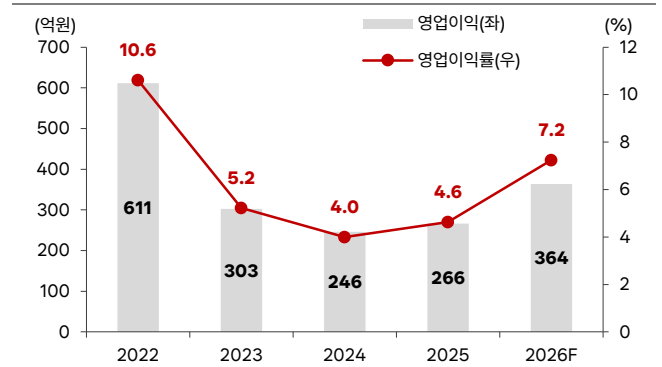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매출액 추이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영업이익 추이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원, %)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759	5,796	6,156	5,749	5,029
증가율 (%)	-2.9	0.6	6.2	-6.6	-12.5
건강기능식품	3,553	3,211	3,375	3,166	3,264
화장품	2,029	2,424	2,610	2,396	1,558
치약, 손소독제 등	136	126	120	119	107
임대 / 기타	41	35	50	68	101
매출원가	4,729	4,985	5,306	4,918	4,217
매출원가율 (%)	82.1	86.0	86.2	85.5	83.9
매출총이익	1,030	810	851	830	812
매출총이익률 (%)	17.9	14.0	13.8	14.4	16.2
영업이익	611	303	246	266	364
영업이익률 (%)	10.6	5.2	4.0	4.6	7.2
증가율 (%)	-33.3	-50.5	-18.6	8.2	36.6
세전계속사업이익	558	260	234	-240	503
(지배주주)당기순이익	405	197	181	-227	385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aluation

1 수익성 회복 여부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 5.9배, PBR 0.6배
(다만, 일회성 영업외이익 제외 시
PER 약 9.8배)**

콜마비엔에이치는 국내 최대 수준의 건강기능식품 ODM 생산능력과 기능성 소재 및 제형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다. 건강기능식품 산업은 브랜드사와 OEM/ODM 제조기업 간 사업구조 및 수익성에 차이가 있어, 동사와 유사한 건강기능식품 OEM/ODM 사업을 영위하는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를 동종기업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서흥은 2026년 실적 컨센서스가 부재하여 예상실적 기준 밸류에이션 비교에서는 노바렉스와 코스맥스엔비티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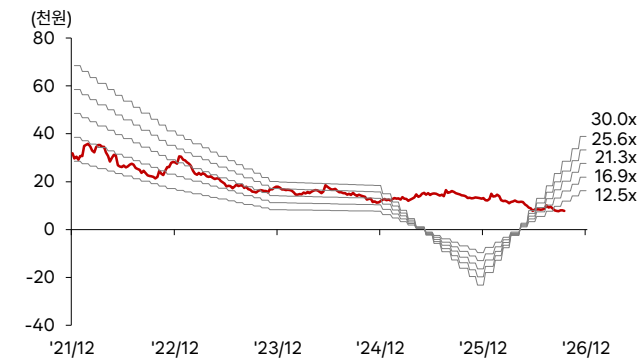
2026년 10월 20일 종가 7,850원 기준 동사의 시가총액은 2,259억원으로, 2026년 예상실적 기준 PER 5.9배, PBR 0.6배에 거래되고 있다. 동종기업의 2026년 예상실적 기준 평균 PER 3.2배, PBR 1.1배와 비교하면 PER은 높은 반면 PBR은 낮은 수준이다. 다만 PBR은 노바렉스와 동일한 0.6배로, 동종기업 평균과의 격차에는 코스맥스엔비티의 상대적으로 높은 PBR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사의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은 7.2%로 노바렉스(11.0%)와 코스맥스엔비티(8.7%)를 하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성이 현재 밸류에이션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2026년 예상 PER은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처분이익을 감안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동사는 2026년 상반기 콜마스크 지분 매각과 에치엔지 화장품 사업 양도로 각각 약 165억원과 26억원, 합산 약 191억원의 처분이익을 인식하였다. 해당 이익은 2026년 예상 지배주주순이익 38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며, 연간 예상 실효세율을 적용한 세후 처분이익 약 147억원을 차감하면 정상화 지배주주순이익은 약 23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한 2026년 정상화 PER은 약 9.6배로, 동종기업 평균 PER 3.2배를 상당 폭 상회한다. 따라서 일회성 이익에 따른 PER 하락 효과를 고려하면 현재 주가를 이익가치 측면에서 저평가된 수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PBR 기준으로는 과거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동사의 2026F PBR은 0.6배로 최근 5개년 PBR 밴드 0.6~2.7배의 하단 수준에 위치하고 있다. 다만 낮은 PBR이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글로벌 ODM 사업의 수익성 회복이 지속되면서 자본수익성 개선이 확인될 필요가 있다.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 둔화와 선제적인 설비투자에 따른 고정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주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나, 2026년에는 글로벌 ODM 고객사 확대와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이 회복되고 있다. 또한 비핵심 사업 정리와 차입금 축소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은 향후 자본효율성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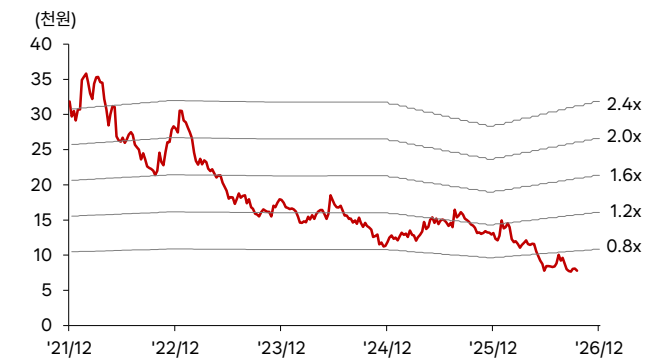
향후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핵심은 일회성 이익을 제외한 정상화 수익성 회복 여부로 판단한다. 동사의 2026년 예상 ROE와 ROIC는 각각 10.4%, 11.5%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서 제시한 2027년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업재편 관련 처분이익을 제외한 정상화 ROE는 약 6.4%로 추정된다. 글로벌 ODM 고객사 확대와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을 통한 영업이익 증가, 신규 구강케어 사업의 수익 기여가 지속되어야 자본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따라서 현재 주가는 과거 PBR 밴드의 하단 수준에 위치해 있으나, 정상화 이익 기준으로는 동종기업 대비 높은 PER에 거래되고 있어 향후 영업수익성과 ROE 회복이 확인되는 시점에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한다.

PER 밴드차트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PBR 밴드차트



자료: 콜마비엔에이치,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기업 비교

(단위: 원, 억원, %, 배)

		콜마비엔에이치	서흥	노바렉스	코스맥스엔비티
주가(원) 2026년 10월 20일 종가 기준		7,850	18,730	9,720	5,030
시가총액 (억원)		2,259	2,167	1,774	1,038
자산총계(억원)	2023	6,945	9,937	2,647	3,001
	2024	6,909	10,177	2,896	3,172
	2025	6,497	10,611	3,596	2,830
	2026F	5,699	N/A	3,970	3,040
자본총계(억원)	2023	3,963	4,771	2,004	406
	2024	3,953	5,078	2,203	620
	2025	3,555	5,410	2,546	488
	2026F	3,918	N/A	2,920	680
매출액(억원)	2023	5,796	5,946	3,022	3,336
	2024	6,156	6,533	2,977	3,180
	2025	5,749	7,223	4,043	2,875
	2026F	5,029	N/A	4,492	3,903
영업이익(억원)	2023	303	430	255	120
	2024	246	338	232	99
	2025	266	502	431	40
	2026F	364	N/A	496	340
영업이익률(%)	2023	5.2	7.2	8.4	3.6
	2024	4.0	5.2	7.8	3.1
	2025	4.6	7.0	10.6	1.4
	2026F	7.2	N/A	11.0	8.7
지배주주순이익 (억원)	2023	197	61	220	-65
	2024	181	183	230	-58
	2025	-227	435	354	-150
	2026F	385	N/A	419	491
PER(배)	2023	26.9	54.3	10.3	N/A
	2024	18.8	8.0	6.1	N/A
	2025	N/A	5.8	7.4	N/A
	2026F	5.9	N/A	4.3	2.1
PBR(배)	2023	1.3	0.8	1.1	3.6
	2024	0.9	0.3	0.6	1.1
	2025	1.1	0.5	1.0	1.6
	2026F	0.6	N/A	0.6	1.6
ROE(%)	2023	4.9	1.5	11.6	-16.3
	2024	4.5	4.2	11.0	-12.3
	2025	-6.0	9.2	15.0	-29.6
	2026F	10.4	N/A	15.4	91.6
PSR(배)	2023	0.9	0.6	0.8	0.4
	2024	0.6	0.2	0.5	0.2
	2025	0.7	0.4	0.7	0.3
	2026F	0.5	N/A	0.4	0.3

주: 콜마비엔에이치의 미래전망치는 당사 전망치. 동종기업의 미래전망치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FnGuid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리스크 요인

1 주요 고객사에 대한 높은 매출 의존도

최대 고객사 매출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주요 고객사의 발주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 상존

콜마비엔에이치는 주요 고객사인 애터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아 해당 고객사의 판매실적과 발주물량 변화에 따른 실적 변동 위험이 상존한다. 연결 매출액에서 최대 고객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2.3%에서 2025년 57.3%로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신규 ODM 고객사 확보를 통해 매출구조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주요 고객사의 판매 부진이나 재고조정에 따른 발주 감소는 생산시설 가동률 하락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고객사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2 사업재편 이후 수익성 안정화 및 신규사업 성과 불확실성

사업재편 이후 수익성 회복의 지속
여부와 신규 구강케어 사업의
수익화 속도가 주요 변수

2026년 콜마그룹의 사업재편 이후 핵심 사업의 수익성 개선이 지속될 수 있을지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당사는 콜마스크 지분 매각과 에치엔지 화장품 제조사업 양도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ODM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결 매출 규모가 축소된 가운데, 비핵심 사업 정리에 따른 비용 절감과 생산시설 가동률 상승이 영업수익성 개선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사업재편 이후 비용구조 안정화가 지연되거나 기존 건강기능식품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예상보다 수익성 회복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신규 구강케어 사업의 수익화 여부도 중장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콜마오랄스를 통한 치약사업 양수와 신규 ODM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구강위생용품 전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사업 초기에는 생산시설 운영 및 신규 고객사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주 확대가 지연될 경우 예상 매출과 이익 기여 시점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ODM의 안정적인 이익 성장과 신규 구강케어 사업의 수익성 확보 여부가 향후 실적 전망의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매출액	5,759	5,796	6,156	5,749	5,029
증가율(%)	-2.9	0.6	6.2	-6.6	-12.5
매출원가	4,729	4,985	5,306	4,918	4,217
매출원가율(%)	82.1	86.0	86.2	85.5	83.9
매출총이익	1,030	810	851	830	812
매출이익률(%)	17.9	14.0	13.8	14.4	16.2
판매관리비	419	507	604	564	448
판매비율(%)	7.3	8.7	9.8	9.8	8.9
EBITDA	756	468	437	463	565
EBITDA 이익률(%)	13.1	8.1	7.1	8.0	11.2
증가율(%)	-26.7	-38.2	-6.6	5.9	22.2
영업이익	611	303	246	266	364
영업이익률(%)	10.6	5.2	4.0	4.6	7.2
증가율(%)	-33.3	-50.5	-18.6	8.2	36.6
영업외손익	-45	-36	-15	-512	134
금융수익	34	55	90	75	31
금융비용	73	98	127	100	77
기타영업외손익	-6	7	22	-487	179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8	-6	3	5	5
세전계속사업이익	558	260	234	-240	503
증가율(%)	-39.3	-53.5	-10.0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155	73	62	-14	118
계속사업이익	404	187	172	-226	385
증가율(%)	-41.0	-53.6	-8.2	적전	흑전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04	187	172	-226	385
당기순이익률(%)	7.0	3.2	2.8	-3.9	7.7
증가율(%)	-41.0	-53.6	-8.2	적전	흑전
자배주주지분 순이익	405	197	181	-227	385

현금흐름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53	563	392	379	489
당기순이익	404	187	172	-226	385
유형자산 상각비	133	152	175	177	180
무형자산 상각비	12	13	15	19	21
외환손익	2	9	1	5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492	123	-9	-55	46
기타	-6	79	38	459	-143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726	-969	-424	228	21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126	100	2	-2	36
유형자산의 감소	11	3	131	4	582
유형자산의 증가(CAPEX)	-492	-918	-475	-154	-400
기타	-119	-154	-82	380	1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43	328	-92	-169	-1,086
차입금의 증가(감소)	489	575	80	-3	-1,065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115	-92	-90	-109	-21
기타	-31	-155	-82	-57	0
기타현금흐름	4	2	4	-5	155
현금의증가(감소)	-326	-76	-119	433	-223
기초현금	919	593	517	398	831
기말현금	593	517	398	831	608

재무상태표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F
유동자산	2,403	2,267	2,238	2,246	1,848
현금성자산	593	517	398	831	608
단기투자자산	481	373	735	274	241
매출채권	322	284	328	286	250
재고자산	878	905	693	768	672
기타유동자산	131	187	84	87	76
비유동자산	3,766	4,678	4,671	4,251	3,850
유형자산	2,481	2,843	3,122	2,728	2,366
무형자산	217	208	230	110	109
투자자산	654	604	291	353	316
기타비유동자산	414	1,023	1,028	1,060	1,059
자산총계	6,169	6,945	6,909	6,497	5,699
유동부채	1,542	2,196	2,364	1,938	664
단기차입금	509	692	1,086	864	61
매입채무	348	599	453	514	450
기타유동부채	685	905	825	560	153
비유동부채	601	786	592	1,004	1,11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472	684	441	935	1,052
기타비유동부채	129	102	151	69	64
부채총계	2,142	2,982	2,956	2,942	1,780
자배주주지분	4,016	3,987	3,971	3,538	3,902
자본금	148	148	148	148	148
자본잉여금	90	87	-27	-94	-94
자본조정 등	-2	-102	-124	-160	-62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3	14	-5	-25	-25
이익잉여금	3,767	3,840	3,979	3,668	3,934
자본총계	4,027	3,963	3,953	3,555	3,918

주요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2026F
P/E(배)	20.6	26.9	18.8	N/A	5.9
P/B(배)	2.1	1.3	0.9	1.1	0.6
P/S(배)	1.5	0.9	0.6	0.7	0.5
EV/EBITDA(배)	11.7	13.8	10.3	10.5	4.5
배당수익률(%)	1.1	1.7	2.7	0.6	1.0
EPS(원)	1,371	667	614	-771	1,321
BPS(원)	13,594	13,495	13,499	12,027	13,559
SPS(원)	19,493	19,617	20,929	19,544	17,236
DPS(원)	308	308	308	75	75
수익성(%)					
ROE	10.3	4.9	4.5	-6.0	10.4
ROA	7.0	2.9	2.5	-3.4	6.3
ROIC	15.1	5.8	4.4	4.8	11.5
안정성(%)					
유동비율	155.9	103.2	94.7	115.9	278.2
부채비율	53.2	75.2	74.8	82.8	45.4
순차입금비율	11.5	30.1	28.4	29.9	6.4
이자보상배율	19.2	4.1	2.7	3.7	6.9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0	0.9	0.9	0.9	0.8
매출채권회전율	21.3	19.1	20.1	18.7	18.8
재고자산회전율	7.4	6.5	7.7	7.9	7.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콜마비엔에이치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6.10.22	콜마비엔에이치-해외 ODM 확대와 생산효율 개선으로 수익성 회복
2025.06.19	콜마비엔에이치-수출 확대로 증명하고 있는 건가식의 저력
2024.07.26	콜마비엔에이치-2023년을 저점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진행중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소중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가치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